

방송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현황

이 강 규*

국제교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방송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따라 본고는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기구(AIBD), 세계방송통신기구(IIC),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ABU), 유럽방송연맹(EBU), 세계방송연맹(WBU), 전미방송협회(NAB),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라운드테이블(APRR), 세계공영방송총회(PBI) 등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AIBD는 우리 방송사와 정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로서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사무국장 개인에게 너무 의존한다는 부작용도 있다. IIC의 경우 각국 규제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ABU와 EBU의 경우 방송사들이 참여하는 지역 기구지만, 역내 방송사를 거의 망라하기 때문에 매우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기구들이다. 그 밖에 WBU는 각 지역 방송기구들의 모임이며, NAB는 방송기술과 관련하여 거래의 장이라는 기능을 한다. 한편 APRR과 PBI의 경우 조직이라기 보다는 연례 회의의 성격이 강하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방송기구 및 단체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국가 이미지 제고, 최신 방송 및 규제 동향 파악, 개도국 지원 등의 측면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협력연구실 연구원, (02)570-4214, kkyulee@kisdi.re.kr

목 차

I. 서론 / 2
II. AIBD / 4
1. AIBD 개관 / 4
2. AIBD의 목표 및 기능 / 5
3. AIBD의 기구 구성 / 7
4. AIBD의 주요 활동 / 13
5. 우리나라 참여 현황 / 20
6. 평가 및 시사점 / 21
III. IIC / 22
1. IIC 개관 / 22
2. IIC의 목표 및 기능 / 22
3. IIC의 기구 구성 / 23
4. IIC의 주요 활동 / 25
5. 우리나라의 참여 현황 / 33
6. 평가 및 시사점 / 33
IV. ABU / 34
1. ABU 개관 / 34
2. ABU의 목표 및 기능 / 34
3. ABU의 기구 구성 / 35
4. ABU의 주요 활동 / 37
5. 우리나라의 참여 현황 / 39
6. 평가 및 시사점 / 40
V. 기 타 / 41
1. WBU / 41
2. EBU / 41
3. NAB / 42
4. APRR / 43
5. PBI / 43
VI. 결 론 / 44

I. 서론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 있어서 국

내외 교류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의 세계적 전파와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방송 분야에 있어서도 일찍부터 국가 간 협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양자 간 협력 이외에 다자간 협력의 무대로서 국제기구들 및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다만, 방송 관련 국제기구들은 정치·경제 분야의 국제기구들에 비하여 일반인들 사이에 인지도가 극히 낮으며, 정치·경제 분야의 국제기구들이 각국 정부의 참여에 기초하여 주로 활동하는 반면에 방송이 가지는 문화적 특성상 정부 간 참여보다는 민간 방송사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반인에게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지만, 향후 국제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동될 수 있는 방송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중요 단체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에 관련 문헌이 드물고 그에 따라 관련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소개는 방송 관련 국제기구 및 중요 모임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정보 제공 측면과 동시에 앞으로 방송 분야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연구의 시발점을 제공하는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방송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로는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기구(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and Development: AIBD), 세계방송통신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mmunications: IIC),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 ABU), 유럽방송연맹(European Broadcasting Union: EBU), 세계방송연맹(World Broadcasting Union: WBU), 전미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라운드테이블(Asia-Pacific Regulatory Roundtable: APRR), 세계공영방송총회(Public Broadcasting International: PBI) 등을 꼽을 수 있다.¹⁾ 이러한 방송 관련 국제기구는 크게 지역별로 구분될 수도 있고, 참여주체별로 구분될 수도 있다.²⁾ 본고에서는 편의상 병렬적으로 이들 기구와 단체를 다루면서, 각각의 조직구성, 목적 및 기능, 운영 방식, 활동 분야 및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정부 측과 방송사가 모두 참여하는 AIBD를 특히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본고는 주로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주로 각 기구의 인터넷상 홈페이지와 각 기구들에서 발간하는 책자, 기구에 참여했던 인사들과의 인터뷰 및 직접 참여 경험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³⁾

- 1) NAB는 정부간 기구로 보기는 어렵고, APRR의 경우 사실 후술하듯이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 등 기구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PBI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국제공영방송페스티벌(INPUT) 등도 공영 방송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나 시사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한편, 편의상 이후부터는 각 명칭을 모두 영문 약어로 표기하기로 한다.
- 2) 지역별로 볼 때 AIBD와 ABU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EBU는 유럽을, NAB는 북미지역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으며, 참여주체별로는 정부와 방송사가 모두 참여하는 AIBD 및 IIC와 정부기관만이 참여하는 APRR, 방송사 위주의 ABU, EBU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 3) 특히, KBS 민은경 전 국제협력팀장, KBS 국제협력팀의 김창민 씨, EBS 정현숙 전 유아교육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양정훈 씨 등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II. AIBD

1. AIBD 개관

AIB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방송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훈련원을 설립하기 위한 UNESCO 결의를 통해 1977년 창설되었다. 애초에 UNESC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발전을 위해서 방송기관에 관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1967년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방송 인력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AIBD의 기본 성격은 비영리 정부 간 기구(IGO)로서 초창기에는 약 13개국만이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매해 약 50개국 1,500 방송사들이 참여하는 기구로 발전하였다.⁴⁾

본래 유사한 지역기구인 ABU에 비해 규모 및 활동이 미약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한정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자바드 모타기(Dr. Javad Mottaghi) 현 사무국장 취임 이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역동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ABU와의 차별화 보다는 양 기구의 역할이 중복되어 가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아직까지 ABU에 비해서는 기구의 체제가 완전히 정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인다.⁵⁾ 다시 말해, 현 모타기(Mottaghi) 사무국장의 활발한 노력에 의해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장점과 아울러 개인의 역량에 의해 조직 전체가 좌지우지되는 취약성도 보이고 있다. AIBD는 ABU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하고 있다.

4) 1977년 첫 AIBD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는 방글라데시, 벨기에,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등에 불과했다.

5) 이와 같은 내용은 AIBD 회의에 참가한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 AIBD의 목표 및 기능

(1) AIBD 원 설립 협정상 목표와 기능

AIBD의 원 설립협정은 1977년 채택되어, 1981년 발효되었으며, 전문과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원 설립협정에는 13개 회원국이 참여하였다.

원 설립협정 제3조에 따른 AIBD의 목표는 “① 각 국가의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훈련과 조사계획을 통하여, 자국방송 체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개선하도록 본 연구원의 회원국을 지원하며, ② 교육 및 개발목표에 부합하도록 회원국의 방송기관 및 방송 종사자의 업무를 지도하며, ③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각종 방법, 기술 및 물적 자원을 개발하며, ④ 방송 개발, 훈련 및 연구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기관의 조직을 창설하는 데 있다.”⁶⁾ 고 한다. 즉, 크게 훈련과 그에 관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AIBD의 기능으로서는 “① 회원국 방송요원의 전문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안된 지역적 및 국가적 수준에서의 이들에 대한 훈련과정, 세미나 및 연구과정을 조직하며, ② 개발주도형 방송훈련과 관련된 교과과정, 연수자료 및 방법 등을 창안하며, ③ 회원국의 사회적 및 경제적 개발과 관련된 방송문제에 관한 조사 및 비교 연구를 실시하며, ④ 교육 및 개발 목적을 지향한 표본 프로그램과 견본을 제작하며, ⑤ 방송 및 관련주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조직하며, ⑥ 요청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자문 및 협의역무를 제공한다.”⁷⁾는 점을 들 수 있다.

(2) 2001년 개정협정상 목표와 기능

1997년부터 AIBD 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팀이 발족되어 작업에 착수한 결과 1999년 설립협정을 개정하여 2001년 12월에 새로운 설립협정이 발효되었으며, 본 개정협정은 전문과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정협정의 명칭은 ‘AIBD의

6) 번역은 대한민국 관보에 실린 번역을 주로 따랐다.

7) AIBD 원 설립협정 제4조.

새로운 비전, 미션 및 목표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IBD's New Vision, Mission and Objectives)'이다.⁸⁾ 원 설립협정과 달리 개정협정은 중국어·영어·불어 및 러시아어로 작성된 협정을 모두 정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협정에는 26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원 설립협정에 비해 2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개정협정의 마련은 원 설립협정 이후 눈부시게 발전된 방송기술 및 새로운 방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노력은 목표와 기능의 명시에 있어서도 반영되어 있다.

개정협정에 따르면, AIBD는 그 기구의 목적으로 “① 역내 전자미디어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기 위한 논의 및 대화를 증진, ② 전자미디어의 개발 및 수렵에 관한 회원국 간의 긴밀한 역내 협력을 증진, ③ 전자미디어의 개발을 위하여 할당된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간의 협력을 증진, ④ 지속적인 인적 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전자미디어의 운영을 촉진, ⑤ 전자미디어분야에서 공동 연구, ⑥ 국제협력과 제휴를 위하여 강력한 지역적 연계를 구축, ⑦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것을 꼽고 있다.

아울러 그 기능으로서는 “① 전자미디어의 개발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구심점 역할의 수행, ② 전자미디어 관련 정책·인적 자원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정보의 교환과 토론을 위한 지역적인 장의 제공, ③ 회원국의 국내 방송연수기관의 활동을 공유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소로서의 역할의 수행, ④ 회원국 내 방송종사자의 전문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안된 지역적·소지역적 및 국가적 차원의 훈련과정·세미나 및 워크샵의 조직, ⑤ 개발지향적 방송훈련과 관련된 교육과정·교재 및 방법의 고안, ⑥ 회원국의 경제·사회개발과 관련된 방송상의 문제에 관한 조사 및 비교연구의 수행, ⑦ 교육과 개발목표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의 원형 및 모델의 생산, ⑧ 방송 및 관련 주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배포의 조직화, ⑨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자문 및 협의의 제공”을 들 수 있다.

8) 우리 측 협정 원문에는 제목이 “Agreement Establishing the 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Development Concluded at Kuala Lumpur on 12 August 1977 As Amended”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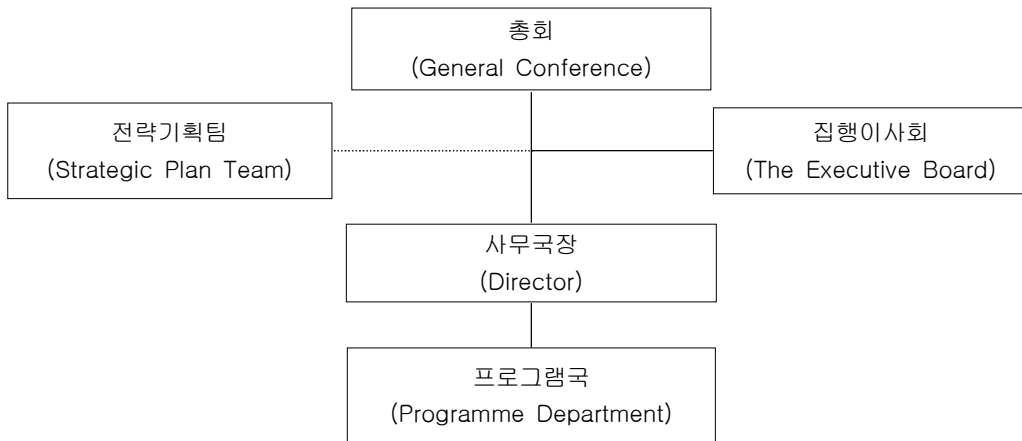
AIBD는 개정협정과 관련하여 비전 및 미션도 제시하고 있는데, ‘정책 개발 및 인력 개선을 통하여 아태지역에서 전자 미디어 환경의 활성화와 응집력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이에 따른 미션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전자미디어 정책의 논의 및 협력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전자미디어 분야의 인적 자원 개발을 돕고 미디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3. AIBD의 기구 구성

(1) AIBD의 조직

AIBD는 협정상 총회와 집행이사회, 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전략기획팀이 추가되어 운영되고, 사무국장의 행정업무를 돕는 사무국장실 직원과 AIBD의 활동을 관장하는 프로그램 매니저들로 구성된 프로그램국이 있다. 사무국장실과 프로그램국을 합하여 사무국으로 볼 수 있다.⁹⁾

[그림 1] AIBD 조직도



9) 프로그램매니저들의 경우 2명의 공동 비서를 두고 있다.

(2) 총회(General Conference)

AIBD의 의결기구로는 연례회의(Annual Gathering) 및 관리위원회(Governing Council)가 1977년 창설 이래 운영되어왔으나, 1999년 제25차 연례회의에서 개정된 협정에 따라 총회 및 집행이사회 체제로 격상되었다. 2009년 현재 연례회의는 35번째, 총회는 8번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AIBD는 이 두 가지를 아직 병기하고 있다.¹⁰⁾

총회의 설치 근거는 개정협정 제8조다.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정기회의를 1회 개최한다. 다만, 투표권은 정회원에게만 한정된다. 총회는 집행이사회의 자문(advice)을 받아 의장이 요청할 경우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총회 의장단은 의장(President), 부의장(Vice President), 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각 1인이며, 총회에서 2년마다 선출된다. 투표방식은 다수결이다. 현직 의장단 2년 임기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후 2년, 즉 1번의 임기를 쉰 다음에는 다시 선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임과 중임이 가능하다.¹¹⁾

AIBD 사무국장은 총회의 간사(Secretary)가 되며, 투표권은 갖지 못한다. 총회의 간사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공여국의 대표·UN 전문기구·AIBD에 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후원자 또는 협력단체를 참관인(observer)으로서 초청할 수 있다. 초청받은 참관인은 참가할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당연히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개정협정 제8조에 명시된 총회의 권한은 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 ② AIBD 집행이사회를 선임하되, 최초 회의 시에는 집행이사회의 수, 선출조건 및 집행이사회의 기능에 관하여 결정, ③ AIBD 사무국장을 임명, ④ AIBD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사무국장에게 정책결정 사항과 지침을 부여, ⑤ AIBD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⑥ AIBD 비정회원 자격 신청을 승인, ⑦ 본 협정의 개정을 승인, ⑧ 본 협정에서 인정하는 기타 기능을 직접 또는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 등등이다.

10) 예컨대, 2009년 총회의 경우 정식 명칭은 “35th Annual Gathering and 8th AIBD General Conference”로 되어 있다.

11) 현 의장은 몰디브의 Ali Khalid(몰디브 방송사 TVM CEO)이며, 부의장은 피지의 Neumi Leweni(피지 정보통신부 Deputy Secretary)이다. 현 의장단은 2008년 7월에 임기가 시작되었다.

<표 1> 총회개최 현황

회차	개최지	개최기간
제1회	베트남 하노이	'02. 8. 27~29
제2회	인도 뉴델리	'03. 7. 22~25
제3회	스리랑카 콜롬보	'04. 2. 15~19
제4회	브루나이 다루살람	'05. 7. 26~30
제5회	태국 푸켓	'06. 7. 24~28
제6회	몰디브	'07. 7. 16~19
제7회	인도네시아 발리	'08. 7. 21~24
제8회	피지	'09. 7. 20~23

(3)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집행이사회는 원 협정상의 관리위원회(governing council)가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협정에서는 집행이사회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 협정상 규정되어 있는 관리위원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원 설립협정 제7조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10개 회원국(또는 기구대표)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UNESCAP의 회원 및 준회원인 모든 국가가 참가할 수 있는 정부간 회의에서 최초로 선출된다.¹²⁾ 임기는 2년이며, 최초 임기 2년이 만료된 뒤에는 선출된 10개 회원국 중 절반인 5개국이 퇴임하며, 5개국의 결정은 추첨으로 이루어진다. 그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나머지 5개국이 퇴임한다. 다만, 퇴임회원국도 재선될 자격을 가진다. 원 설립협정 당시에는 공석은 회원국의 우편 투표로 충원되었다.

10개 회원국 이외에도 규정상 7명의 관리위원회 회원이 있었다. 이들은 소재지국 정부인 말레이시아 대표 1명, ABU 대표 1명, UNDP 대표 1명, UNESCO 대표 1명, ITU 대표 1명, 이사회가 AIBD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여 초청하는 지원정부 또는 협력

12) 처음으로 관리위원회에 선출된 국가들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과 말레이시아였다.

기구 대표 1명, 사무국장 등이다. 이 중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관리위원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관리위원회의 권한은 2년에 1회 의장을 선출하며, AIBD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정책 결정과 지침을 사무국장에게 제공하고, AIBD의 예산을 승인하며, AIBD의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AIBD의 행정 및 재정상 그리고 직무상 규칙을 승인하며, 원 설립협정에 따라 관리위원회에 부과되는 기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관리위원회의 권한 중 상당수는 개정 협정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총회로 이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정 협정에 따라 집행이사회는 총회에 의해 설립되지만, 총회 권한 중 상당수를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집행이사회로 보인다. 현재 집행이사회는 총회 및 AIBD 주요 의제인 재정, 인력관련 투자 및 보유기금(Reserve Funds) 관련 문제, 행정조직, 프로그램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현재 집행이사회의 의장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관료인 Freddy H. Tulung(인도네시아 MICT, Director General)이며 집행이사회 이사국은 총 9개국이다. 2008년 총회 기준으로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몰디브, 싱가포르, 이란 등 총 9개국이며, 이 중 네팔,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는 2009년 7월로 임기 2년이 만료되었고, 말레이시아, 몰디브, 싱가포르, 이란은 2008년 재선되어 임기는 2010년 7월까지다. 한편, 2009년 총회에서는 2009년 7월로 임기가 만료된 국가를 총회하기 위해 새로 집행이사국을 선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연임), 파푸아뉴기니, 피지가 선출되었다.¹³⁾ 총회의 의장국과 사무국장은 당연직(ex officio)으로 집행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¹⁴⁾

(4) 전략기획팀(Strategic Plan Team)

전략기획팀의 경우 원 설립협정이나 개정협정상의 근거가 없다. 추측하건대, 1998

13) 한국은 중국의 추천을 받은 후 모든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집행이사국에 선출되었다.

14) 이에 따를 때, 인도네시아의 경우 총회 의장 소속국이므로 사실상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의장과의 임기가 다를 경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년 AIBD 전략계획 수립에 따라 자문 기구의 역할로 활동하는 조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략기획팀에서 마련한 안건을 집행이사회가 승인하고 총회에서 이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영향력 면에 있어서는 총회와 집행이사회를 능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예컨대, AIBD 상에 있어서 매해 주제 및 분야 선정에 대해서도 그 결정이 전략기획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마카오에서 진행된 Asia Media Summit 기간에 열린 전략기획팀 회의가 21번째 회의였으며, 현재 의장은 중국광전총국 국제합작사 부사장(과장급) 차오인(曹寅)이다. 2009년 총회에서는 마카오에서 논의된 품질경영인증서 획득, 아프리카 방송연맹(African Union of Broadcasters: AUB)과 MOU 체결 등 국제적 협력 체계 확대, 개발을 위한 글로벌 미디어 센터(Global Media Centre for Development: GMCD) 설립 계획, AIBD 운영비 절감과 수입 확대 방안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표 2> 역대 전략기획팀 의장(2006년 기준)

	성 명	소속 및 직위
제1기	Mr. Syed Anwar Mahmood	Director General, Pakistan Broadcasting Corporation
제2기	Dr. Boonlert Supadhiloke	Deputy Director, Public Relations Department of Thailand
제3기	Mr. Sireli Kini	CEO, Fiji Broadcasting Corporation
제4기	Mr. Cao Yin	Deputy Director General, SARFT of China

(5) 사무국

1) 사무국장의 역할과 권한

개정협정 제9조에 따르면 AIBD의 사무국장은 총회에 의해 임명된다. 또한, 사무국장은 총회의 결정 및 지침의 수행, AIBD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의 준비, AIBD 사업계획의 집행 및 AIBD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총괄·지휘·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제11조 일반규정에 의하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사무국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행정·재정 및 인사규칙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규칙을 채택한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상 AIBD는 현 모타기 사무국장의 개인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유연하고 활동적인 조직이라는 장점과 아울러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운영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단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무국장은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급(level 1) 직위 직원을 임명한다. 기타 모든 직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임명권을 가진다. 총회 의장단의 임기가 2년인데 반하여, 사무국장의 임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례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현 모타기 사무국장의 경우 10년 넘게 재직하고 있다.

〈표 3〉 역대 사무국장(2009년 기준)

	재직기간	성 명	경 력
초대	1977~1986	R. Balakrishnan	- AIBD 프로젝트 매니저
2대	1987~1995	Dato'Abdullah Mohamad	- RTM(말레이시아 방송국) 사무총장
3대	1996~1997	Mr. F. Hugh de Silvia	- 스리랑카 방송사 라디오 아나운서겸 교육부 직원
4대	1997~1998	Ismail bin Mustapha	- RTM 뉴스부 국장 - 말레이시아 방송협회장
5대	1998~현재	Dr. Javad Mottaghi	- IRIB(이란국영방송) 사장 자문역 - IRIB 방송 연합 및 국제협력국 국장 - 이란 Tehran Sharid 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 영국 Teessi 대학교 경영학 석사, 박사

2) 사무국 구성인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무국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사무국장 아래에 일반 행정직원, 비서 및 프로그램 매니저들이 사무국의 구성 인원이 된다. 이 중 사무국장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은 행정직원 2명과 IT 관련 직원 1명이다. 나머지 10명 정도인 프로그램 매니저들은 AIBD 활동에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그 밖에도 AIBD의 각종 행사 및 회의를 주관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급여는 고정급 이외에 프로젝트 참여 및 수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며, 고정급 보다는 주로 성과급에 의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에 처음으로 선임(senior) 프로그램 매니저 직책이 신설되었으며, 여기에는 25년 이상 유관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마닐 쿠레이(Mrs. Manil Cooray)가 임명되었다.

직원들은 경력뿐 아니라 연령 면에서도 매우 다양하며 출신 지역도 인도, 말레이시아, 이란 등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AIBD의 공식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구사력은 뛰어난 편이다. AIBD 직원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편의 및 물리적·기술적 시설을 제공받으며, ‘UN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는 지위와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6) AIBD 회원 현황

개정협정 제2조에 따르면 UNESCAP 회원 및 준회원인 모든 국가는 AIBD의 회원 자격을 가진다. AIBD의 회원은 크게 정회원(full members), 준회원(affiliate members)로 구분되며, 이외에도 국제파트너(international partners)가 있다. 개정협정 제15조(원협정의 서명국 또는 계약당사국의 비준·수락)와 제16조(원협정의 서명국이 아닌 국가의 가입)에 의하여 협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AIBD의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은 26개 국가의 정부 및 방송사가 되며, 준회원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¹⁵⁾ 현재 정회원으로 등록된 기관 및 단체는 43개이며, 준회원은 2009년 현재 91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한편, 국제파트너에는 ABU, UNESCO, ITU, UNDP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AIBD의 주요 활동

(1) 연수 프로그램 및 자문서비스

AIBD의 연수 프로그램 및 자문서비스는 AIBD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동 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 AIBD의 연수 프로그램에는 현재까

15) 26개국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중국, 캄보디아, 피지,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알파벳순)이다.

지 25,000명 이상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디어 관련자가 참가했으며, 매년 약 50개국 1,500명이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얻고 있다. 프로그램의 형태는 75개 분야로 세분화 된 맞춤형 연수와 더불어, 관련 협회 및 방송사와의 합동 워크숍 등이 모두 포함된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1년 동안에만도 AIBD는 54개 개별 주제에 대하여 84개 훈련과정과 워크숍을 개설 및 개최하였으며 33개 파트너와 68명의 컨설턴트들이 참여하여 총 1,838명의 참가자들을 교육하였다.¹⁶⁾

우리나라 방송사의 경우 AIBD의 창설 초기인 1980년대에는 주로 연수 프로그램의 수혜자였던 입장이었으나, 2006년부터 KBS가 AIBD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방송사에 컨설턴트를 파견하는 등 이제는 교육의 수혜자가 아닌 공여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선진제작기법 및 시스템구축기술을 개도국 등에 전수하여 해당지역의 친한(親韓) 인사 그룹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국제 방송계에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표 4> 한국 방송사의 AIBD 연수 참석 현황

기간	KBS	MBC	기타방송사	소계
1980~89	20	44	CBS(3), DBS(1), TBC(2), FEBC(1)	71
1990~2000	8	10	SBS(1), EBS(2), 광주 MBC(1)	22
2000~2003	8	4	SBS(1), EBS(2), 마산 MBC(1)	16

출처: KBS 국제협력팀 자료

현재 AIBD에서 운용 중인 주요 프로그램 분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새로운 방송기술(new broadcasting technologies), 방송파일 보관(broadcast archiving), 시청자 조사(audience research), 분쟁 해결(conflict resolution),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children's programming), 어린이 프로그램의 허구적 및 실질적 폭력(fictional and real violence in children's programmes), TV뉴스 제작(TV news production), 미디어

16) 84개 과정은 2007. 7~2008. 6의 65개에 비하여 약 20%나 증가한 수치다.

어 법(media laws),¹⁷⁾ 조사 저널리즘(investigative journalism), 융합 저널리즘(convergent journalism), 윤리(ethics), 공영 서비스 개발 프로그램(public service development programmes), 평화저널리즘(peace journalism) 등등이다.

(2) 역내 대화체 마련 및 운영

각종 국제회의 및 대화체의 운영은 AIBD의 활동 중 교육 및 훈련에 못지 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sia Media Summit의 경우 규모나 참가자 면면에 있어서는 총회보다도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다.

1) 아시아 미디어 서밋(Asia Media Summit: AMS)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TV, 라디오 등에 한정되었던 미디어의 영역이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핸드폰, IPTV 등 다양한 신규 미디어의 출현으로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 방송계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하에서 정확성, 객관성, 윤리성 등 미디어의 기본 핵심 가치들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의 제약을 없애려는 논의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AIBD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제기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방송사, 언론사 및 정부 유관 부처 등이 공동의 대응방안과 상기에서 밝힌 바와 같은 핵심 가치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역내 대화체로서 2004년 AMS를 출범시켰다.

2009년 제6회를 맞이한 AM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정상급 국제방송회의로서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중동, 북미지역에서 매년 60여 개국 500여명의 정부정책결정자, 영향력 있는 언론사 대표 및 유력 인사들이 참가하여 정보교환과 방송외교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¹⁸⁾

17) 국내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미디어관련 법안과는 초점이 다르다. 즉, 방송사의 저작권보호, 방송윤리 등에 중점을 둔 논의가 진행된다.

18) 2009년 마카오에서 열린 AMS는 중국의 광전총국이 주관하였으며, 마카오 행정장관, 몰디브 문화부 장관 등 정부인사, 교수 등 학계인사, 방송사 사장 등의 업계 대표들뿐 아니라 UNESCO, ITU 등 국제기구에서도 다수가 발표 및 토론자로서 참가하였다. 한편, 참가자 수도 2004년 350명, 2005년 334명, 2006년 442명, 2007년 483명, 2008년 501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MS에서 다루지는 주요 의제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볼 수 있는 경제발전, 빈곤퇴치, 에이즈퇴치, 인종·종교·문화적 갈등 해소, 여성의 권익 신장, 문화적 소외계층 등 소수자에 대한 권익 확대 등이다. AIBD는 AMS의 공식 기간 2일뿐 아니라 AMS를 전후로 다양한 사전 및 사후 행사를 마련하여 논의 주제를 매우 폭넓게 다루고 있다.¹⁹⁾

〈표 5〉 역대 AMS 내용

회차	장소	주제	주요 의제
6차 (‘09. 5. 26~27)	중국 마카오	미디어와 능력 구축(Media & Capacity Building)	- 인력개발을 통한 능력 배양 등
5차 (‘08. 5. 25~2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새로운 비전(New Vision)	- 신규매체 등장과 대응 - 신규매체 비즈니스 모델 - UGC 등
4차 (‘07. 5. 26~3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재검토, 재고(再考), 재충전 및 혁신(Revisiting, Rethinking, Replenishing, Renovating)	- 참여하는 미디어 시대 - 드라마/리얼리티쇼: 새로운 포맷 - 방송의 새로운 물결 등
3차 (‘06. 5. 28~3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역과 문화간의 대화 조정 (Mediating Dialogue between Continents and Cultures)	- 언론의 독립과 책임 - 세계 시청자를 위한 로컬콘텐츠 개발 - 미디어 통신 융합 등
2차 (‘05. 5. 28~3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 증진(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In a Globalised World)	- 국제화와 문화적 도전 - 표현의 자유 vs 미디어 소유권 - 평화 저널리즘 등
1차 (‘04. 4. 17~22)	-	-	- 미디어와 이슬람 - 글로벌화/문화다양성/뉴스어젠다 - 문명의 대화 등

2010년도 제7차 AMS는 중국 베이징에서 2010년 5월 25~26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며, 지구 온난화, 문화와 창의성 등 13개 세션 주제 초안을 마련한 상태

19) 2009년에도 AMS 사전 및 사후 행사로 HIV와 AIDS에 대한 세미나, 디지털 시청각 문서구축에 관한 NHK와의 공동 세미나, 아태지역 아동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세미나 등이 개최되었다.

다. 중국 광전총국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AMS를 주관하기로 하였다.

〈표 6〉 향후 AMS 개최 예정

개최 시기	장소	주관
2010. 5. 25~26	중국(베이징)	광전총국(SARFT)
2011. 5. 24~25	베트남(하노이)	VOV, MIC
2012. 5. 29~30	인도(뉴델리)	정보부(MIC)
2013	인도네시아(발리)	정보통신부(MICT)

2) 아태-유럽 미디어 대화체(Asia-Pacific-Europe Media Dialogue)

AIBD, 유럽방송연맹(EBU)과 UNESCO는 아태 지역과 유럽 지역 간 문제인식의 공감대 형성과 창의적인 해결 방안의 도출을 위해 2006년 9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최초로 아시아·태평양·유럽 미디어 대화체를 개최하였다. 이어 제2차 회의가 독일 본에서 2007년 9월 3일~5일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3차 회의가 2009년 11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 예정이다.

〈표 7〉 아태 - 유럽 미디어 협력체 2009의 주제

세션	주제
1	정치와 미디어 어젠다(Politics and Media agenda)
2	디지털 시대의 광고-TV/라디오 콘텐츠에 대한 TV 등급제의 영향(Advertising in Digital Age-Impact of TV ratings on TV/Radio content)
3	미디어의 대중 참여 증가(Increased Public Participation in Media)
4	미디어와 책임의식 있는 실행(Media and Responsible Practice)
5	종교와 문화 보고(Reporting Religions and Cultures)
6	틈새 방송(노인, 소수자 및 기타)의 최근 동향(Modern Trends in Niche Broadcasting, Elderly, Minorities, and Others)
7	기후변화와 재난 이슈(Climate Change and Disaster issues)
8	콘텐츠 공유와 공동제작: 대륙간 대화(Content sharing and co-productions: Intercontinental Dialogue)

아태-유럽 미디어 협력체는 50여 개국 300여명의 아태유럽 주요 미디어 CEO와 전문가가 참석하여 디지털 기술 혁명과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상호 이해와 단결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며, 주요 의제로는 문화적 다양성, 표현의 자유, 공정한 정보사회, 문명 간 대화 등을 다루고 있다.

3) 향후 주요 회의

AIBD는 상기 모임이외에도 ‘아태지역의 정보 및 방송에 관한 정상회의’(Conference of the Heads of States on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in the Asia-Pacific region)를 2011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회의는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부(MCIT)가 주최하며 총 3일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주로 라디오·TV의 수장들이 회의를 가질 것이며, 둘째 날에는 장관급 회의가 셋째 날에는 국가정상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주최 측인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관리의 말에 의하면 장관급 회의가 주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본 회의의 내용과 예상 결과는 전략기획팀에서 준비 중에 있다.

2013년의 ‘세계 어린이 미디어 정상회의 2013’(World Summit on Media for Children 2013: WSMC) 또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본 회의는 비용과 시간 절감을 위하여 2013년 발리에서 열리는 AMS를 전후하여 개최된다. 이 회의는 AIBD가 시작한 AIBD의 고유 사업은 아니다. 세계 정상 운동(World Summit Movement)은 1995년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된 이래 매 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1998년에는 런던에서, 2001년에는 그리스 세살로니카에서, 2004년에는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2007년에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으며 2010년에는 스웨덴 칼스타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 다음 2013년의 회의를 AIBD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3) AIBD Awards 운영

AIBD는 종교, 사회, 문화적 갈등 해소를 비롯한 국제문제에 대해 방송매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결연 방송연맹들과 후원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크게 4개 부문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고 있다. 출품작의 주제는 상에 따

라 매년 새롭게 설정되고 있으며 전략기획팀에서 주로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표 8> AIBD 주관 상의 종류 및 내용

구분		출품 장르 및 주제	후원사	상금
World TV Awards		- 2004년 신설 - 장르: 다큐멘터리 - 주제: 종교적 이해와 관용 촉진 등(2009년 주제는 국제분쟁해소)	아랍방송연맹 남아프리카방송연맹 영연방방송연맹 말레이시아(RTM) 이란(IRIB)	US \$7,000
Annual Awards	Annual AIBD TV Award	- 주제: 기후변화, 에이즈, 문화유산, 자연재해 등(2009년 주제는 물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어린이 TV 쇼 프로그램)		2개 부문 각 US \$500
	Annual AIBD Radio Award	- 주제: 어린이 교육, 시스템구축사례 등(2009년 주제는 건강관련 교육 프로그램)		US \$500
	Reinhard Keune's Memorial Award	- 주제: 문화적 다양성 등(2009년 주제는 소외계층 통합 라디오 프로그램)	독일 Friedrich-Ebert-Stiftung 재단	US \$1,000

※ 제6회 AIBD World TV상(2009)에는 15개국 31개 응모작에 대한 심사를 거쳐 스위스의 <Morocco: Never Again>이 대상에, 네팔의 <Peace Song>이 우수상에 선정됨

(4) 출판

AIBD는 다양한 회의 개최와 교육 프로그램 마련 이외에도 출판물을 통하여 회의 결과와 주요 방송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AIBD의 출판물은 서적의 형태 뿐 아니라 CD나 DVD로 발표되기도 한다. 2008년 8월에서 2009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에만 『Asia Media Summit 2009』, 『Asia-Pacific Approach to Public Service Broadcasting』, 『Handbook on Ethical Principles in Broadcasting』, 『DVD on Broadcasting and Cultural Diversity』, 『Handbook on HIV&AIDS for Training TV Producers』 등이 출간되었으며, 향후 1년 간 『AIBD/CBA/FES Handbook on Media and Elections』, 『AIBD/CBA Handbook on Maximizing income and Controlling

Costs In Small and Medium Broadcasting Operations』, 『Minimum Quality Standards in HIV Communication』, 『Handbook on Training of Trainers』 등이 출간될 계획이다.

5. 우리나라 참여 현황

우리나라는 AIBD의 설립 초기부터 참가하였는데, 1977년 8월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채택된 동 기구의 설립협정을 1978년 9월 15일 제6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1978년 10월 11일 우리 측 대표가 서명하여 1981년 3월 6일 UN 사무국에 기탁하였다. 당시의 가입 방송기관은 한국방송협회였으며 이후 2006년에 방송위원회로 변경된 후 2008년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 대표하여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2009년 총회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도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연회비 30,000달러를 납부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방송발전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방송사들의 경우 KBS는 AIBD 정회원으로서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AIBD 프로그램의 강사 등으로 파견하고 각종 회의에 참가하여 발표자 및 사회자로 활동하고 있다. EBS의 경우 AIBD의 요청에 따라 정현숙 팀장이 2008년 1월 9일부터 2009년 1월 8일까지 1년간 AIBD 사무국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근무한 적이 있다.

〈표 9〉 한국방송사들의 AIBD 상 수상내역

방송사	연도	수상부문	작품 및 내용
KBS	2008	제5회 World TV Award 우수상	차마고도
	2005	Annual TV Award 청소년교육 부문	도전골든벨
		Annual Radio Award 청소년교육 부문	우리는 친구, 우리는 희망입니다
		Annual TV Award 농촌개발다큐멘터리 부문	세 마을 이야기
2002	AIBD 최우수 웹사이트 부문		
SBS	2008	World TV Award 기후변화 부문 최우수상	재앙
	2005	Annual Radio Award 라디오 아카이브 구축 부문	
	2004	World TV Award 문화다양성 부문 최우수상	폴씨에게 갈채를-아프간 선수들
EBS	2003	Annual TV Award 우수교육 부문	아기성장보고서

6. 평가 및 시사점

AIBD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인 KBS가 정회원으로서 참여하는 국제기구라는 점과 정부측과 방송사측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NHK에서 참여하기는 하지만,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일본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점과 중국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정부 측 입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방송의 영향력 확대와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고려했을 경우 일본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각국 방송사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10여 년간 차오인이라는 동일 담당자가 계속 참여하고 있고, 2009년과 2010년 AMS를 개최하는 등 그 참여도도 적극적이어서 우리가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자칫 갈등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방송 분야가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갈등과 충돌보다는 공동 제작 등 협력에 기초한 사업에 익숙한 분야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협력 확대라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겠다.²⁰⁾

특히, AMS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방송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접촉이 적었던 국가 또는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나 우리나라 방송 홍보 등의 효과 면에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참가나 회의 유치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참여 확대를 통한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는 경우에도 AIBD라는 기구의 현재 특성이 사무국장 1인에 의하여 좌우되는 면이 크다는 점과 방송사 및 방송 인력이 업무 특성상 태생적으로 가지는 자율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발히 참여하는 OECD나 ITU 등 대규모로 조직화된 다른 국제기구에 대한 대응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20) 방송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문화적 차이, 제작기법상의 차이 등 공동제작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국가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Ⅲ. IIC

1. IIC 개관

IIC는 방송 분야의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이다. 1960년 UNESCO에서 국제방송기구(International Broadcasting Institute: IBI)의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1966년 기구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회의를 거쳐, 1967년 이탈리아에서 IBI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1971년 런던으로 소재지를 옮겼다. IIC라는 명칭은 1977년부터 IBI에서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갈수록 복잡하고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방송통신 분야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국제적인 토론이 가능한 조직,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조직을 설립해보자는 배경에서 IIC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IIC는 대화와 논의를 위한 국제적인 틀을 제시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통신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IIC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기부금 및 프로젝트수주 등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기부금은 회원 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부, 기증 및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성된 기금은 국제적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관장하며 소수의 임선된 위원들이 기금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IIC는 독립적이며 학제적인 조직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자, 규제자, 학자, 산업 주체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터넷, 전자통신, 방송, 뉴미디어를 포함한 통신 분야의 현재 추세와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비영리적 포럼을 제공하고 있다.

2. IIC의 목표 및 기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IC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통신에 대한 접근성(access)을 증진하고 각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 대화를 나누기 위한 지구적 차원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방송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방송기술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개도국 방송에 대한 자문 등이 IIC의 주요 기능이 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IIC는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여 인터넷, 방송, 통신, 활자, 뉴미디어 등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영역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참여자에 있어서도 규제기관 및 정책담당자 외에 방송사, 미디어회사, 학계 인사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3. IIC의 기구 구성

(1)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이사회는 의장(President)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되며, 대학 교수, 변호사, 기업 임원 등 다양한 인력들이 포진하고 있다. 의장은 Arne Wessberg(EBU 전임 회장, 핀란드 YLE 방송사 사무총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6명의 이사들은 각각 Andrea Millwood Hargrave(옥스포드 대학 조교수), Marina Osterlund-Karinkanta(핀란드 YLE 시니어 미디어 애널리스트), Ann LaFrance(UK Sanders & Dempsey 파트너), Bernard Courtois(캐나다 정보기술협회 CEO), Augusto Preta(이탈리아 ITMedia 컨설팅 총지배인), Romano Righetti(이탈리아 Wind Telecommincazioni 이사) 등이다.

(2) 위원단(Trustee)

위원단은 종신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이며,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대학 교수 등 학계인사, 방송 및 통신 사업체 경영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종신위원 3명은 Lord Briggs of Lewes(역사가, 영국), Dr. Thomas P Hardiman(법률가, 미국), Brian Quinn(경제학 교수, 영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머지 위원 10명은 Peter Alexiadis, Michael Bryan-Brown, Lyn Maddock, Michael R. Nelson, Roberto Napoli, Robert Pepper, Jean Paul Simon, John Tandoh, Dr. Andrew Taussing, Janet Yale 등이다.

(3) 사무국

사무국의 구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이사회 이사 중 한 명인 안드리아 밀우드 하그레이브(Mrs. Andrea Millwood Hargrave)가 국장을 맡고 있으며, 총 직원은 6명 남짓으로 알려져 있다.

(4) 회원

회원은 약 70개국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되어 있으나, 명단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회원은 크게 개인 회원, 기업 회원, 텔레콤 및 미디어 포럼(Telecoms and Media Forum) 회원, IRF 회원, 기관 회원으로 나뉜다.

개인 회원은 텔레콤, 방송, 전자 미디어 산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며, IIC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국가별 지부에 참여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산업 분야의 중개인들과 의사결정자들과의 네트워킹 구축이 가능하다는 이점과 더불어 IIC가 발간하는 저널인 『인터미디어(Intermedia)』를 구독할 수 있다.

기업회원의 경우 국제적인 텔레콤 기업, 방송 및 전자 미디어 관련 기업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텔레콤 및 미디어 포럼 회원의 경우 12개월 주기로 개최되는 각기 다른 3가지 포럼에 최대 4명까지 참가가 가능하고, IIC의 총회와 국가별 지부 회의에도 참가할 수 있으며, 『인터미디어(Intermedia)』의 구독이 가능하다.

IRF 회원은 국제규제기관포럼(International Regulators Forum: IRF)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으로서 각 국가의 규제당국만이 신청 가능하다. IRF에는 2명까지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며 IRF 회원의 경우 각종 회의에 대한 참가비 할인 및 초청 등이 가능하다. 또한, 규제 정책에 대하여 IIC에게 조언을 할 수도 있다. 『인터미디어(Intermedia)』의 구독도 물론 가능하다.

기관 회원은 비영리기구도 신청이 가능하며, 총회 또는 국가별 지부 회의에 참석 시 참가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 IIC의 주요 활동

(1) 회의 운영

1) IRF

IRF는 각 회원국의 규제기관이 모여서 규제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으로서, 통상 총회가 개최되기 전 이틀에 걸쳐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다. IRF는 규제 토대의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 규제기관 담당자들에게 정보 교환과 학습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등 규제 정책과 관련하여 통찰력을 제공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의 경우 홍콩에서 11월 1일과 2일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홍콩 방송관리국(Broadcasting Authority)과 홍콩 전신관리국(Office of the Telecommunications Authority)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표 10> 2008년 IRF 세션 별 주제

세션	주 제
1	미래를 향한 규제 접근법-공동 및 자율 규제가 해답인가?(Regulatory approaches for the future-is co and self-regulation the answer?)
2	전달체계가 중요한가?-디지털 TV 규제(Does the delivery system matter?-regulating digital television)
3	모바일 TV 서비스 규제와 규제 비대칭 해결(Regulation of mobile television services and dealing with regulatory asymmetry)
4	공익을 위한 NGNs의 도입(Delivering NGNs for the public benefit)
5	공적인 가치와 공영 서비스-시장이 제공할 것인가?(Public values and public service-will the market provide?)
6	스펙트럼 분배-효율적 분배와 비효율 분배(Spectrum allocation-what works and what doesn't?)
7	규제와 경쟁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Regulation and Competition)

2008년 IRF에서는 상기 7개 세션과 관련하여 기초연설 및 개회사 발표를 포함하여 총 12명이 발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2008년 IRF 발표자 개요 및 내용 요약

번호	발표자	소속국	내 용
1	Daniel R Fung	Hong Ko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방송통신산업 규제 소개 • 기존 방송규제와 통신규제는 각각 방송법과 통신법에 따르며, BA(Broadcasting Authority)와 TA(Telecommunications Authority)가 집행을 담당 • 방통융합 추세에 맞춰 홍콩은 Communications Authority 라는 통합 기구가 방송과 통신 모두를 규율하도록 현재 입법화 추진 중임
2	Ling Pek Ling	Singapo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융합시장의 경쟁 이슈들 (Competition Issues in Convergent Markets) - 융합에 따른 경쟁 변화, Cross-leveraging의 부정적 효과, 서비스 번들링, 배타적 콘텐츠 협정(ECA), 경쟁입찰 가격 상승, 소비자에 대한 경쟁의 효용성, Cross-leveraging·독점에 대한 규제적 접근 등에 대해 소개
3	Roberto Napoli	Ita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아날로그 전환과 디지털 시대로의 이행 관리 (Managing analogue switch-over and transition to digital era) - DTT 규제 골격 개발, DTT 시장 진화, DTT 디코더 시장, DTT 네트워크에 대한 TV 프로그래밍, AGCOM의 규제 활동, 아날로그 전환일정, 모바일 TV 규제 골격 등 이탈리아 상황을 소개
4	Modipe Chris Nkwe	Botsw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보츠와나 방송 산업의 난점 극복 (Overcoming challenge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in Botswana) - 보츠와나의 지리적·인구적 어려움, 공영 방송 상황, 규제 기구·사업자 및 정책입안자간의 관계, 신기술과 시장, 규제기구의 역할, 지역적 특수성 등을 설명
5	Mohamed Sharil Tarmizi	Malaysi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모바일 TV 서비스 규제와 규제의 비대칭성 (Regulation of Mobile Television Services and Dealing with Regulatory Asymmetry) - 융합에 기초한 골격, CMA 1998에 따른 규제 원칙, 콘텐츠·어플리케이션·네트워크 서비스·네트워크 시설 등 통신 및 멀티미디어 분야의 융합 CMA 1998를 위한 허가, 허가 환경, 모바일 TV 플랫폼, 콘텐츠 측면에서 규제의 비대칭성 등 말레이시아 상황을 소개

번호	발표자	소 속	내 용
6	Paris Mashile	South Afr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공익을 위한 NGN의 도입 (Delivering NGNs for the Public Benefit) - 브로드밴드의 성장, 메타컴퓨팅 등에 따른 브로드밴드 수요의 증가, 엔터테인먼트 산업·교육·헬스케어·재택근무·국가안보 등 브로드밴드 응용영역에 대하여 설명
7	Robin Blake	Brit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공동 및 자율규제에 대한 Ofcom의 접근방법 (Ofcom's approach to co and self-regulation) -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등 유럽의 상황, 규제 시점에 대한 초기 평가, 규제 시행시기에 대한 결정 요소 등을 소개
8	Y K Ha	Hong Ko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홍콩의 스펙트럼 관리 (Spectrum Management in Hong Kong) - 스펙트럼 정책 골격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들로 스펙트럼 거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AIP 계획, 디지털 배당 등을 소개
9	Dominic Sheehan	Newzea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미래를 위한 규제 접근법-공동 및 자율규제가 해당인가? (Regulatory Approaches For the Future-Is Co and Self-Regulation The Answer) - 뉴질랜드의 상황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 뉴질랜드 방송사, 콘텐츠 표준, 공동규제 등에 소개함
10	Leonard Katz	Cana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제목 없음 - 공공의 가치와 공공 서비스를 시장이 제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집중(concentration), 콘텐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소수의 시청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Local Programming Improvement Fund에 대해 언급함
11	Marion Lai	Hong Ko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제목 없음 - 홍콩 라디오 스펙트럼 간략 소개
12	Lyn Maddock	Austral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GN의 사회적 이익, 디지털 및 모바일 세계에서의 범용 액세스, 비용 부담, 다중 플랫폼 기술의 출현과 규제를 오스트레일리아의 상황과 함께 소개

2009년도 IRF 또한 총회 개최 전 2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의의 공통 주제는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다.

〈표 12〉 2009년 IRF 세션 별 주제

세션	주 제
1	- 규제의 역할-어느 정도면 충분한가? 어떠한 다른 규제 관행이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가?(The role of regulation-how much regulation enough? What other regulatory practices can fill the gaps?) -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 규제?(Analogue regulation in a digital world?)
2	다중 플랫폼에 대한 규제(Regulating across multiple platforms)
3	인터넷의 개방성과 그에 대한 규제(The openness of the net and regulating it)
4	‘기존 방송’에 대하여 새로운 경제성을 붙여넣을 수 있는 규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인가?(What is the regulator’s role in encouraging the new economies for ‘conventional broadcasting’)
5	스펙트럼 이슈(Spectrum Issues)
6	시장의 발전-합병 또는 다양화?(The Development of markets-consolidation or diversification?)

2) 연차 총회(Annual Conference)

연차 총회는 IRF 개최 후 이틀 간에 걸쳐서 열리며, 매년 장소를 바꿔 개최되고 있다고 한다. IIC의 총회는 활기찬 토론과 아울러 논의의 공성성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다. IIC 총회는 선도적인 통신 정책 이슈와 통신 분야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며, 미래 통신 부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간의 의견 교환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09년 총회는 제40회 총회이며, 주제는 ‘글로벌 통신 동향-예측불가능성과의 싸움(Trends in Global Communications: Wrestling with unpredictability)’이다. 이번 총회는 IIC 캐나다 지부에서 주관하며, IIC 캐나다 지부는 통신 및 미디어 분야에 관한 경험적 자료, 전문적 지식 및 축적된 통찰 등을 교환하고 공유하며, 불확실성 하에

서 미래의 트렌드에 대한 이정표를 모색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IIC 총회 성격의 전통을 이번 회의에서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 13> 2009년 총회 세션 주제

세션	주 제
1	행동의 융합-소비자의 기대 외면(Convergence in Action-Consumers Defying Expectations)
2	미디어 플랫폼의 합성과 조화-통신이라는 체스판에서의 이익 전략(Mixing and Matching Media Platforms-Manoeuvring for Advantage on the Communications Chess Board)
3	브로드밴드의 미래(Broadband Futures)
4	개별 토론(Breakout Groups)
	(1) 통신과 경제위기-조사(Communications and the economic crisis-taking stock)
	(2) 웹 2.0 이후는?(What next after Web 2.0?)
4	(3) 멀티미디어 권리라는 정글에 길을 닦기 (Clearing a path through the multimedia rights jungle)
5	통신과 규제-다시 시작할 때인가?(Communications and Regulation-Time to Start Over?)
6	개별 토론(Breakout Groups)
	(4) 모바일이나 무선이 개도국에 있어 초고속 전송 솔루션이 될 것인가? (Will mobile or wireless prove to be the broadband delivery solu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5) 사회적 미디어, 네트워킹 및 공공장: 함의는 무엇이고, 미래는 어떠한가(Social media, networking and the public space: what are the implications and future?)
	(6) 인터넷-개방성에 한계가 있는가?(The internet-are there limits to its openness?)
	(7) 2015년 통신 세상의 양질의 콘텐츠를 위한 새로운 경제 모델 정의 (Defining a New Economic Model for High Quality Content in the Communications World of 2015)

3) 텔레콤과 미디어 포럼(Telecommunications and Media Forum: TMF)

TMF는 1년에 약 3차례 개최되며, 개최 장소는 각기 다르다. 다만, 브뤼셀과 워싱턴에서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 TMF는 실무그룹의 형식으로 운영되며 발표자와 참가

자간의 상호 논의를 증진하고 해당 지역의 미디어와의 무선통신 및 융합에 중점을 두며, 규제완화에서 공개 경쟁 관리로의 정책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참가자는 약 50명의 해당 업계 고위급 대표자들로 구성된 선별 집단(selective group)에 한정된다.

TMF는 또한 미국의 FCC,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영국의 Ofcom 및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규제기구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 무선통신업체와 미디어콘텐츠 공급업체가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각 회의의 프로그램들은 포럼 회원들과의 깊은 상담으로 계획되며 참가자들 간의 견 교환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한다.

2008년 워싱턴 포럼은 ‘다중 플랫폼의 세계-무엇이 주요한 이슈이며, 점진적인 결과물은 무엇인가?’라는 주제 하에 무선, 브로드밴드, 사이버 공간, 네트워크 안전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2009년 5월에는 바레인에서 바레인의 통신규제기구 주최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표 14> 2009 바레인 TMF 세션 주제

세션	주 제
1	- ICT와 미디어의 경제·사회적 영향: 근거와 목표 - 국가와 지역의 목표와 현실 - 경제 위기의 영향-기회와 한계
2	고속 접속가능성 형성-정책 제안은 무엇인가?
3	브로드밴드의 조성 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4	규제와 공공정책이 국가적인 브로드밴드 목표에 기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TMF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규모가 큰 것은 브뤼셀 포럼이다. 브뤼셀 포럼은 아이디어의 산실(incubator)과 아이디어의 촉발자(instigator)를 표방하며, 아이디어의 산실(incubator)로서는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개최, 토론, 출판기념회 및 다양한 사교행

사 개최 등의 역할을, 아이디어의 촉발자(instigator)로서는 유럽의 싱크탱크, 재단 등과 협력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색다른 견해 및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브뤼셀 포럼에는 캐서린 포텐(Catherine Potten) 현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총 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혁신과 경쟁력(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민주주의와 소통(Democracy and Communication), 세계화와 지속가능성(globalisation and sustainability), 권리와 안보(rights and security), 위험과 사회(risk and society)라는 5가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2) 출판

IIC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체 저널로 『인터미디어(Intermedia)』를 일 년에 약 6회 정도 발간하고 있다. 『인터미디어(Intermedia)』는 다양한 범위의 커뮤니케이션 이슈와 최근의 국제 정책 및 규제 이슈를 다루는 정기 간행물이며 세계적인 독자들이 구독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다루어진 이슈들로는 유럽에서 제안된 텔레콤 프레임 변화, 방송TV에 대한 시청자 전화 참가 프로그램의 할증요금 규제, 사물의 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과 Web 2.0의 충돌, 해저 텔레콤의 국제 통로 연결망이라는 과제, 전자상거래에서의 web-scraping위협, TV포맷 권리의 미래, 인터넷에서의 아동 보호 등등이다.

(3) 국가별 지부(national chapter) 활동

IIC회원들의 보다 폭넓은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위해 각 지역 단위로 IIC 지부가 마련되어 있다. IIC 지부는 호주,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및 미국 등에 위치하고 있다.

IIC 아시아 지부는 텔레콤, 방송 및 전자 매체의 융합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내 산업 주체와 정책 결정자들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IIC 아시아는 산업 분야, 정부, 학계를 한자리에 모으고 통신 융합 분야와 관계된 주제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조직하며, 회원들에게 관련 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기술, 비즈니스 및 융합 등과 같은 국제적·지역적 정책 문제에 대해 다루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IIC 아시아 지부는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고 싱가포르에도 지사가 있으며, 의장, 이사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임원진이 운영을 맡고 있다. 하지만, IIC 아시아 지부의 회원이 된다고 해서 IIC 자체의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IIC 캐나다 지부는 통신 분야의 동향과 그 영향에 대해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분석하기 위한 포럼을 캐나다의 기업, 정부, 학계에 제공하기 위하여 1960년대 후반에 설립되었다. IIC 캐나다 지부는 대화를 위한 국제적 틀을 제시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IIC의 취지에 협조하는 것을 역할로 삼고 있다. 운영은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 의해 이루어지며, 동 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및 재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의장은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 의장이 겸임하고 있다.

〈표 15〉 최근 IIC 지부 회의 주제

지부	연도	주 제
IIC 아시아	2008	- 글로벌 통신 동향: 불확실의 세계에서 우위 점령(Trends in Global Communications: Capturing the High Ground in an Uncertain World) - 작은 화면: 큰 반향(Small Screen: Big Scream)
IIC 캐나다	2009	- 뉴 미디어: 파이프 채우기(New Media: Filling the Pipes) - 프로그래머와 배급자: 새로운 평형(Programmers and Distributors: The New Equation) - 무선 브로드밴드: 프라임 시간대와 온라인에서도 가능한가?(Broadband Wireless: Ready for Prime-time or Online?)
IIC 영국	2009	- 무선의 물결: 스펙트럼 영역에서의 기회, 위협 및 과제(Making Waves with Wireless: opportunities, risks and challenges in the spectrum space) - 중국과 인도의 창조적인 영역 비교(Chinese and Indian Creative Sectors compared)

IIC 영국 지부는 관련 단체의 고위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 통신 및 방송 관련 현안들을 토론하는 연중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각 행사는 ‘채텀 하우스 룰(Chatham

House Rule)’에 따라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된다.²¹⁾

5. 우리나라의 참여 현황

우리나라의 IIC회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이며, 민간 방송사들은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RF의 회원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전에는 방송위원회에서 참가하였다. 2006년 IRF에서는 당시 방송위원회 정재하 연구위원이 ‘콘텐츠 디지털화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Copyright Issues with Digitization of Content)’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으며, 2007년 조창현 방송위원장이 총회 및 IRF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국내사정상 불참하였다. 2009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원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6. 평가 및 시사점

IIC의 활동 중 IRF와 국가별 지부 활동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IRF의 경우 방송통신을 담당하는 각국의 규제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관심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국가별 지부의 경우 일 년에 수차례 이상 모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및 국가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IIC 아시아의 경우 호주가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포럼의 성격이 강하며, 인적 구성면에서도 정부 측 인사보다는 글로벌 기업의 아태지역 담당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차원에서 동북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IIC 동북아시아’ 등의 설립 및 참가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21) 채텀하우스룰이란 “회의에서 토론되거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나 인용이 가능하지만 그 모임에서 의견을 발표한 사람의 이름이나 소속에 대해서는 보도·인용해선 안 된다(When a meeting, or part thereof, is held under the Chatham House Rule, participants are free to use the information received, but neither the identity nor the affiliation of the speaker(s), nor that of any other participant, may be revealed.)”는 규칙을 말한다.
(<http://www.chathamhouse.org.uk/about/chathamhouserule/>)

IV. ABU

1. ABU 개관

ABU는 비영리, 비정부의 방송 기관 전문 협회로, 1964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송 발전을 촉진하고 회원 기관간의 협력 활동을 기획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국가의 11개 방송기관이 주축을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총 58개국의 200여 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회원사를 통해 볼 때 잠재적인 시청자가 총 30억 명에 달한다.

ABU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포럼을 주최하며, 방송 사업자간의 지역적·국제적 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ABU는 AIBD와 같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하고 있다.

2. ABU의 목표 및 기능

(1) 비전

ABU는 회원사들이 역동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2) 미션 및 목표

1) 미션

ABU는 회원사들 간의 다양성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방송 발전을 촉진시키고 회원 기관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사안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기능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기관들이 자국의 발전과 지역 내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을 통해 회원기관들을 결집시키고, 회원기관의 콘텐츠, 기술 및 기법, 경영 개선 등을 지원하며, 방송 운영 및 기술 표준과 시스템의 지역적·국제적 조화를 추구하고, 회원사들이 새로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디

어 환경에서의 회원기관들의 이익을 확장하는 데 노력한다.

2) 목표

ABU는 회원기관이 이용 가능한 리소스에 맞추어 강점을 최대한 살려 방송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방송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콘텐츠, 기술, 관리 등 공동 이익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합동 프로젝트와 활동을 구성하고 진행하며, 공동 이익 및 정보 교환 문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타 방송 조직체 및 관련 단체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 힘쓰고, 방송을 매개로 하여 지역적·국제적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개발 기구 및 타 국제단체와의 협력 활동을 통한 방송사의 역량 구축을 위한 자원에 도움을 주며, 회원사간의 직업 윤리 및 기준에 관한 논의를 촉진하고, 전 회원이 방송과 관련된 모든 국제 협정의 조항들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고, 회원사간의 전문 지식 교류를 촉진하고 장려하며, 회원기관을 대신하여 스포츠 및 주요 행사 중계권을 협상하고, 뉴스 교환 서비스를 추진하고, ABU의 회원 확대에 노력하며, 상호 협력에 입각하여 ABU 틀 내에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3. ABU의 기구 구성

(1) 지도부

ABU는 1명의 회장과, 3명의 부회장 그리고 1명의 사무총장이 지도부를 구성한다. 현 회장은 요시노리 이마이(Yoshinori Imai)로 NHK의 부회장이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3년 임기로 선출되었다. 3명의 부회장은 RTM 소속의 하미드(Dato Abdul Rahman Hamid), TDM-마카오 소속의 곤칼브스(Manuel Goncalves), IRIB-이란 소속의 코자스테(Hasan Khojasteh) 등이다. 사무총장은 ABU의 최고 책임자로 회원들에 의해 지명되며 호주 출신의 데이비드 오슬리(David Astley)가 2002년 7월부터 그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현재는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활동 중이다. 2010년 6월에 새로운 사무총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2) 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

ABU 이사회는 총회에서 회원들에 의해 2년 또는 3년 임기로 선출되며, 정회원 및 추가 정회원들이 이사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이사회는 ABU의 정책 결정 및 재정 검토를 위해 1년에 2차례 회의를 가지며, ABU의 기타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²²⁾

(3) 사무국

ABU 사무국 직원은 현재 총 37명이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와 총회에 각종 사안에 대해 보고하고, 사무국은 행정, 채용, 홍보 및 해외업무, 재정 및 정보 시스템 등을 담당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실을 포함하여, 재정부, 기술부, 행정부서, IT 부, 프로그램부, 스포츠부, 개발프로젝트부, 아시아비전, 출판부 등의 부서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도 프로그램부와 기술부가 핵심이다. 프로그램부의 부장은 NHK 출신의 일본인이 맡고 있다.

(4) 회원 구성

ABU의 회원은 정회원(full members), 추가 정회원(additional full members), 준회원(associate members), 특별회원(affiliate members) 및 기관회원(institutional members)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정회원은 39개 국가 58개, 추가 정회원은 18개국 39개사, 준회원은 21개국 36개사, 기관회원 7개국 9개사, 특별 회원 25개국 61개사다.

1) 정회원

ABU가 관장하는 지역 내 독립 국가에 소속되고 시청료를 받지 않는 방송사는 i) 방송사가 위치한 국가 내에서 국가적인 성격의 혹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을 지닌 방

22) 2009년 1월에 출범한 이사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ABC), Radio and Televi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RTPRC), Bhutan Broadcasting Service(BBS), Radio Television Hong Kong(RTHK), All India Radio(AIR), Islamic Republic of Iran Broadcasting(IRIB), Nippon Hoso Kyokai, Japan(NHK), Khabar Agency, Republic of Kazakhstan(KA), Korean Broadcasting System(KBS), Teledifusao de Macau, S.A.(TDM), Radio Television Malaysia(RTM), MNB, HUM TV, Turkish Radio and Television Corporation(TRT)

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ii) 실제로 그들 스스로의 편집권을 가지고 프로그램 보도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주문 제작하는 경우 정회원 또는 추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의 회비는 가입 방송사의 연간 운영비에 따라 결정되며, 한 국가 당 정회원은 2개사로 제한하여 투표권의 행사에 있어서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정회원이 가지는 투표권은 ABU 정관 개정 승인, 사무국 직원의 선출, 신입 회원의 가입 승인 등이다.

2) 추가 정회원

추가 정회원의 가입조건은 정회원과 동일하나 단지 독립 국가뿐 아니라 특별행정구역까지로 범위가 확대된다. 추가 정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지만 투표권에 있어서는 정회원 보다 제한을 받는다. 회비 또한 방송사의 연간 운영비에 따라 결정되는 점은 정회원과 동일하나, 정회원 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3) 준회원

준회원의 경우 시청료를 징수하는 방송사도 회원자격을 갖는다. 준회원은 정회원 및 추가 정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지니지만, 투표권을 갖지 못하며 이사회에 이사국으로 선출될 수 없다. 회비는 정회원이나 추가 정회원보다는 적다.

4) 특별회원

정회원, 추가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방송사가 아닌 경우, 규제기구, 위성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특별회원의 경우 회비는 US \$1,000~5,000 사이에서 결정된다.

5)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국제기구에 적용되며, 주로 ABU와의 상호 회원 인정에 따라 제공되는 자격이다. ABU 이사회 초청에 의해서 기관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4. ABU의 주요 활동

ABU의 주요 활동은 주요 부서의 활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 기술 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제작(production), 전송(transmission), 스펙트럼(spectrum), 훈련(training) 및 서비스 등 4가지 핵심 영역의 기술국(technical bureau)에서 각각 연구 및 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ABU 기술상(ABU Engineering Awards) 시상 등도 맡고 있다.

(2) 프로그램부

ABU 상(Prize)의 선정과 시상을 담당하며, 라디오 뉴스 교환, TV 다큐멘터리 교환, 어린이 TV 프로그램 아이템 교환 등의 활동을 한다. 아울러 라디어아시아(RadioAsia) 등 라디오 관련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3) 아시아비전

198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ABU 본부에 운영 센터(Operations Centre)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비전은 20여 개 아시아 주요 방송사간 뉴스를 위성을 통해 교환하며, 쓰나미, 아프간 전쟁, 조류 독감 등의 이슈를 선도적으로 보도해왔다. 한편, 자체적으로 Asiavision Monthly Award, Asiavision Annual Award, Dennis Anthony Memorial Award, Asiavision Award For Contributions To Asean Television News 등의 상(award)을 운영하고 있다.

(4) 스포츠부

스포츠 행사 중계권을 협상하고 경기를 보도하며, 방송사들이 경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방송 부스 등을 마련하는 업무를 한다. 또한 일 년에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위와 같은 업무를 협의하는 스포츠 그룹을 운영 중에 있다.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정보도 각 방송사에 제공하며, 방송사와 여러 국제 스포츠 협회들과의 연락처로서의 기능도 한다.

(5) 개발프로젝트부

2003년부터 훈련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9년에는 재난 위험 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긴급 경보 방송 시스템(emergency warning broadcast systems), 산호 삼

각해역 이니셔티브(coral triangle initiative), 기후변화(climate change) 및 HIV/AIDS 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거나 할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 제작과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위와 같이 개발프로젝트의 업무는 AIBD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5. 우리나라의 참여 현황

ABU에는 정부 측보다는 방송사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단, 2005년 총회에는 방송위원회에서 참관을 한 적은 있다. KBS의 경우 1964년부터, MBC는 1966년부터 정회원이며 SBS는 1992년부터, EBS는 1994년부터 추가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CBS는 추가 정회원이었으나 현재는 탈퇴한 상태다. 북한의 조선중앙TV도 추가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지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된 (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은 준회원이다.

<표 16> 각 방송사 ABU 상 주요 수상내역(2001년 이후)

방송사	연도	부문	프로그램명
KBS	2001	라디오 부문 대상	소외 에이즈보다 더한 고통
		연예오락부문 대상	도전! 지구탐험대
MBC	2007	다큐멘터리 부문 특별상	유정이의 작은 도전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	돌시인과 어머니
	2006	스포츠 부문 최우수상	2006 FIFA 월드컵 오프닝
	2005	최우수상(라디오)	내 아버지의 유산
	2004	어린이&청소년 부문 대상	사과나무: 장학금
		특별상	MBC 스페셜: 어머니
		특별상	베스트극장: 동행
	2002	부문 대상(라디오)	붉은 함성, 코리아, 꿈
		특별상(라디오)	숨비소리
		특별상(라디오)	에밀레종
	2001	특별상	PD 수첩: 여성장애인 성폭행

방송사	연도	부문	프로그램명
EBS	2008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	동과 서
	2006	TV 어린이부문 대상	아빠랑 나랑 부비부비-빠빠-태권도 압
	2005	TV 뉴스·다큐부문 최우수상	TV가 나를 본다-20일간 TV끄고 살아보기
	2003	Radio 정보 부문 최우수상	일하는 엄마의 천국, 스웨덴을 배운다
		TV 어린이 부문 최우수상	뽕뽕이랑 야야야
	2002	Radio 어린이 부문 특별상	어린이 영어-Jump Up!
		Radio 정보 부문 특별상	부모의 시간
		TV 오락 부문 특별상	TV로 보는 원작동화-하얀 깃발 우리집
2001	Radio 어린이 부문 최우수상	영어동화	

EBS의 경우 정현숙 팀장이 어린이 프로그램 분과 의장으로 7년째 활동하면서 ABU를 대표하여 EBU와 해당 분야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MBC의 경우 추가 정회원을 대표해 임기 2년의 이사직을 3회 역임하기도 하였으며, 1987년 제42차 ABU 이사회의 서울 개최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KBS의 경우에도 현재도 이사국이며, 1997년 ABU 서울 총회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6. 평가 및 시사점

ABU는 기본 성격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국내 방송사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조직이다. 하지만, 위성방송·케이블방송 및 IIC등 방송관련 조직들 및 통신관련 업체들이 참관하는 국제행사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방송 산업계의 콘텐츠관련 동향 및 주요이슈 파악 면에서는 정부 측에도 도움이 되는 행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방송 산업계의 주요이슈의 흐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인 발표 수준 정도의 참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참관 및 관찰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V. 기 타

1. WBU

WBU는 전 세계 방송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방송 관련 기구들의 연합체이다. 1992년에 설립되어 회원 기구들에게 주요 이슈에 관한 글로벌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제방송기구들의 국제방송기구인 셈이다. 따라서, WBU의 회원은 ABU, EBU를 비롯하여 아랍방송연맹(ASBU), 아프리카방송연맹(AUB), 캐리비안 방송연맹(CBU), 국제방송연합(IAB), 북미방송협회(NABA), OTI 등 방송기구들이다. WBU에는 국제위성운영그룹(WBU-ISOG), 기술위원회(WBU-TC)와 스포츠 위원회 등 3가지 실무 위원회가 있다.

2. EBU

최초의 국제 방송사 협회인 국제 방송 연맹(International Broadcasting Union)의 후속 기구로, 1950년 2월 12일에 유럽 및 지중해 지역의 23개 방송기관에 의해 영국 토키에서 설립되었으며 1993년에 유사한 성격의 중앙·동부 유럽 단체인 OIRT (Inter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Organization)와 통합하였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베이징, 브뤼셀, 런던, 마드리드, 모스크바, 뉴욕, 싱가포르, 워싱턴에도 지부를 운영 중에 있다.

EBU는 방송사들의 권익 보호, 방송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관한 연구 촉진,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사의 권익 대변 및 공영 서비스 방송의 가치 증진, 방송계에 법, 기술 및 프로그래밍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 및 정보 제공, 경제 및 시장 분석 진행과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집행이사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의장은 벨기에 RTBF의 Jean-Paul Philippot가 맡고 있다. 56개국 75개 방송사 및 관련 단체가 활동 회원(active member)으로, 세계 각국의 43개 방송사가 준회원(associate members)으

로, 기타 13개 방송사가 승인 참가자(approved participants)로 활동하고 있다. 활동 회원은 유럽 방송이 미치는 범위 내의 ITU 회원국 또는 유럽 방송이 미치지 않는 곳에 위치하였으나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 중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방송사 및 단체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반해 준회원은 유럽 방송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으나 국가 방송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하는 라디오 및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ITU 회원국이며, 그 가입이 EBU에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방송사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준회원은 활동회원과 달리 유로비전 시스템(Eurovision system)에 접근할 수가 없다. 승인 참가자는 ITU 회원국 방송사 중 활동 회원 및 준회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으나 EBU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부여받는 자격이다.

EBU는 유럽 지역 내의 국내외 프로그램을 각 가정에 보급하는데, 주로 뉴스·스포츠·음악 등의 교환을 돕는다. 또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등 TV와 라디오 콘테스트와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으며, 뉴미디어 개발 및 연구에도 노력하여 DAB나 HDTV와 같은 시스템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MBC가 1985년에 준회원이었던 적이 있으며, 현재는 KBS가 EBU의 준회원이다. EBS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매해 독일에서 열리는 어린이 프로그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3. NAB

NAB는 미국 의회, FCC 및 법원 등에 대하여 8,300여개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을 대표하는 방송협회이다. 미국 방송산업계의 기금 출연으로 1922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단체라는 기본 성격에도 불구하고 미주 지역 외 1,500여개 방송사가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NAB에서 매년 개최하는 방송기자재 관련 최대 행사인 NAB show의 경우 2009년에만도 전 세계 십만 명 이상이 참가하여 50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KBS, MBC, YTN 등 방송사뿐 아니라 관련 기업체와 단체에서 참가하고 있다.

4. APRR

APRR은 1996년 호주 방송위원회가 제안하고, 당시 우리나라의 방송위원회, 종합 유선방송위원회를 포함한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호주, 홍콩,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각국이 동의하여 발족된 방송규제기구 간 협의체다. 각 규제기관의 대표자가 참석하며, 회의는 회원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회의 동안 차회 개최지를 협의한다. 다만, 사무국이나 연회비 등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2007년에는 “방송 프로그램: 다채널, 다중 플랫폼 세계에서 품질과 적절성의 확보 (Broadcast Programs: Ensuring quality and relevance in a Multi-channel, Multi-platform World)”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2008년에는 “가버너스-효과적인 규제기관이 지속가능하고 믿음이 가는 산업을 창출한다(Governance-Effective Regulators Create a Sustainable and Credible Industry)”를 주제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전에는 방송위원회에서 참가하였는데, 2005년에는 양희부 당시 상임위원, 2006년과 2007년에는 박진희 국제교류부장 등이 참가하여 발표하였고, 2008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김정태 과장 등이 참석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등을 소개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재하 연구위원은 ‘한국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 새로운 과제(New Challenge for regulating Internet Content in Korea)’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5. PBI

PBI는 미국 PBS, CBC와 캐나다 TV Ontario가 주축이 되어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80개 이상의 공영방송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회원 자격은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과 뉴스를 제공하며 공익에 봉사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방송사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연간 회비는 방송사 규모에 따라 1,000달러와 5,000달러로 구분된다.

2009년 12월에 열리는 교토 회의의 경우 공영 방송사와 방송 국제기구에서 150명

이상의 고위급 인사가 참가하며, 규제에 대한 대처, 통신사 등 새로운 경쟁자들과의 균형 전략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KBS와 MBC 등이 가입되어 있다.

VI. 결 론

이상에서 방송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단체에 관해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 방송 관련 기구 및 단체들은 주로 방송 이슈 관련 회의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기구 및 단체들의 특징은 정치·경제적 성격에 치중한 여타 국제 기구들과는 대조적으로 각 회원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의나 지침을 마련하거나 구속력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지닌 결정 등을 내놓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방송이 가지는 언론 자유 등의 내생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EBU의 경우 자체 논의되는 많은 내용을 EU의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기관들이 모이는 IRF나 APRR 등 회의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관련 회의나 행사에 있어서 유관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시일 내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놓기보다 그 때 그 때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의 특성을 감안할 때,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방송 종사자들이 다수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참가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이 필요한 경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접근과 개별 방송사 차원의 접근을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주로 방송에 대해 규제와 심의의 역할을 하는 정부 측에서 관련 국제 기구 및 단체에 참여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얻을 수 있는 이득에 관하여 보다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본다. 다만, 이들 기구 및 회의의 참여를 통해서 이미지 홍보, 방송 관련 콘텐츠 및 기술 교류, 개도국 지원 등 유형 및 무형의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자료

세계공영방송총회(www.publicbroadcastersinternational.org)

세계방송연맹(www.worldbroadcastingunions.org)

세계방송통신기구(www.iicom.org)

아시아방송연맹(www.abu.org.my)

「아시아 태평양 방송개발 연구원 설립 개정 협정(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34호)」,
『관보』 제14972호, 2001. 12. 8.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연구원설립협정(조약제743호)」, 『관보』 제8814호, 1981. 4. 14.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www.aibd.org.my)

유럽방송연맹(www.ebu.ch)

윤성욱, “방송사 국제협력 현황(2)”, 『방송문화』 제259호, 한국방송협회, 2003. 1.

전미방송사업자협회(www.nab.org)

www.chathamhouse.org.uk/about/chathamhouserule/

<첨부> AIBD AMS의 주요 발표 내용

연도	주제	발표자	내 용
2005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소유권	Khieu Kanharith (캄보디아 정보부 장관)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 정상 회의'(2003년, 제네바)에서 발표된 아세안 공동 성명에서 밝힌 정보의 평등한 활용과 정보 격차 해소를 언급하며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주요 과제로 저작권 문제를 꼽음
		Aidan White (국제기자연맹(IFJ) 총장)	미디어의 질적 저하와 미디어 그룹의 영향력 확대를 지적하면서 이의 극복을 위해 시민들의 정보권리 보장,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정부, 미디어의 다양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원주의 고양, 기자들의 윤리 및 전문적 권리 인정, 편집의 독립성 지원 등을 언급함
	전파매체의 민영화	Jean-Claude Benoist (프랑스국제방송(RFI)사장)	프랑스의 경우 라디오 방송 자유화 조치로 청취자수의 증가, 프로그램 콘텐츠의 전문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공영부문과 민영부분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함
		Ken Clark (피지TV CEO)	상업 방송도 공영 방송 못지않게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각자가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
2006	융합: 방송업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	Wayne Heads (ABU 기술부 부장)	디지털 전환으로 방송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업자가 추진하기 보다는 소비자가 끌어가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함. 그는 변화의 모습으로 방송통신 융합,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DAB(디지털 오디오 방송), ISDB와 DVB, HDTV 대 SDTV, 모바일 TV 플랫폼, 압축기술, IPTV, 위성방송, 콘텐츠 제작과 보호 등을 꼽고 있음
		Clarence Yang (홍콩 라디오 TV 라디오 2 국장)	아직은 방송업체가 콘텐츠 제작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개인 제작자 및 제작 방법의 증가와 상호작용성 및 융합 등의 환경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며, 투자비용 대비 융합의 효과와 함께 변화 상황에 대한 분석/연구에도 힘써야 한다고 함

연도	주제	발표자	내 용
2007	공영 서비스 방송의 미래	Jan C. Hoek (RNW(Radio Netherlands Worldwide) 사무국장)	공영 서비스 방송(PSB)이 공익을 제공하는가에 대해 오늘날 세계에서 PSB는 꼭 필요한 존재며 따라서 공익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익 제공에 있어서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법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함. 아울러 상업 방송사도 중요하나 PSB와 우선 순위가 다르며, 따라서 실제로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공영 방송사들이고, 국제 방송사들은 국내 방송사들이 할 수 없는 보도가 가능하다고 지적함
		Mohamed Nasheed (몰디브 정보예술부 장관)	몰디브의 헌법 개정하의 미디어 개혁을 소개하고, 프랑스 외교부의 동남아시아 시청각 아타셰인 Eric Soulier는 TV와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개발 정상회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프랑스 공영 서비스 방송에 대해 소개함
	방송의 새로운 물결	Hans J. Kleinsteuber (독일 함부르크 언론통신대학 교수)	방송발전을 3단계로 구분하여 현재는 디지털화를 특징으로 하는 3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함. 그는 방송의 미래는 디지털화이나 어떠한 모습일지는 불확실하다고 하면서 이는 기술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소비자들의 기대와 실망 때문이라고 지적함
		Stephen Quinn (호주 디킨 대학 조교수)	앞으로의 전개 양상이 기존 미디어의 한계가 노출되고,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며,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TV가 인터넷으로 합쳐지고 블로거가 방송사의 역할을 하며 시청자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청자층이 더욱 다양화되면서 정보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2008	규제와 뉴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Morgens Schmidt (유네스코 부사무차장보)	3D(발전, 민주주의 및 대화)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뉴 미디어의 등장 및 확산으로 이에 따른 규제가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함. 한편, 미디어의 독점과 집중 문제도 생겨났고, 이를 위해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결국 미디어 자체의 자율 규제(self-regulation)가 중요함을 강조

연도	주제	발표자	내 용
2008	규제와 뉴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Venkat Iyer (영국 얼스터 대학 법학교수)	기존 미디어와 뉴 미디어 간의 실체법상 심각한 문 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잘못이라 고 지적. 또한, 인터넷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따 라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도 결함이 있음 을 주장함. 아울러 절차법적 측면에서 콘텐츠의 책 임 소재와 책임 배분의 방법, 익명 게시물의 처리, 관할권 중첩의 해결 문제 등이 제기된다고 지적함
	미디어와 책임 있는 관행	Kreszentia M.Duer (세계은행연수원 (World Bank Institute) 프로그램 매니저)	미디어의 공익 역할을 방해하는 요소로 표현에 대 한 제한, 정보의 자유, 규제, 관리 문화, 시장의 힘 (Market Forces)과 발전,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도 징수하는 허가비용 등을 꼽았음. 한편,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부와 언론, 표현의 자유, 정보에의 접근권, 미디어의 다 양성,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 지속적인 소스, 충분 한 재정, 책임 있는 미디어 등을 제시함
		Abdul Rahman Abdul Aziz Al hazaa'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정보부 차관보)	정보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차, 상업성·이 익추구 및 광고업체의 욕심, 정보존중법(Information Honour Codes)과 직업 존중의 부재 등으로 인하 여 미디어 종사자와 광고업체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함